Dynaudio MC15 · Sub 250MC

멀티미디어 스피커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

작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디지털 AV 쇼가 열렸다. 아쉬웠던 것은 이번 쇼가 지난 쇼보다 뜨거운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J사의 플래그십 모델을 비롯하여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많은 제품이 선보여 쇼를 보러온 이들을 뜨겁게 했다. 하지만 엔드 유저를 위한 제품보다는 하이엔드 유저를 위한 제품이 대부분이라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다.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개편되는 듯한 느낌은 지우기가 힘들지만 반대로 하이엔드 기기를 요구하는 오디오파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 요구는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오디오파일에게 절실한데, 고가의 하이엔드 시스템을 갖춰 좋은 소리만을 듣던 이들이 컴퓨터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욕구는 당연해 보인다. 그리하여 좋은 소리의 사운드 카드를 찾고 이와 연결할 앰프와 스피커를 찾는데 구성된 시스템으로 소리를 들어보면 PC 스피커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는 소리의 퀄러티를 갖는다. 하지만 작은 크기의 컴포넌트라 할지라도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썩 좋지 못할 수 있다. 주렁주렁 널리는 인터 케이블과 스피커 케이블 역시 시각적으로 정리가 안 된 느낌을 주기 마련이다. 그래서 시장에는 더 높은 퀄러티의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한 고가의 PC용 스피커가 쏟아졌는데 그 신호탄은 클립시가 쏘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작은 크기에 서브우퍼와의 조합은 저음의 부족함을 느끼기 힘들었고 최대 4.1채널로 구성할 수 있어 EAX를 지원하는 게임도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하이엔드 유저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인오디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피커를 접했다. 작년 봄에 있었던 아이어쇼에서 단순히 노트북과 연결해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앰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전원 인디케이터같이 생긴 것에 불이 들어와 있던 것이 아닌가. 다인오디오 최초의 멀티미디어 스피커 시스템을 발표한 것이다. 다인오디오 스피커의 하위 그레이드에 속하지만 멀티미디어 스피커 시스템에선 가장 고가의 하이엔드 레벨이라 할 수 있는 묘한 위치인데 소리는 '다인오디오의 향수' 그대로였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메인시스템과 별도로 서브우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처음이 부족하다면 이 서브우퍼와 시스템을 구성하라는 의미가 엿보인다.

다인오디오의 이 스피커의 모델명은 MC15이며, 서브우퍼는 Sub 250MC이다. 미리 이야기해두지만 이 제품은 반드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MC15 스피커만 따로 구매할 수 있고 후에 Sub 250MC를 추가할 수도 있다. 리뷰 역시 MC15 위주로 진행하고자 한다.

다인오디오의 MC15는 일반적인 스피커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피커는 흔히 2가지 시스템으로 나뉘는데 패시브 크로스오버와 액티브 크로스오버이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파워 앰프에 스피커 케이블을 연결하여 구동하는 방식이다. 파워 앰프로부터 유입된 신호를 크로스오버 회로에서 필터링하여 각각의 유닛을 구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완전히 다르다. 액티브 크로스오버라는 방식은 ATC 스피커 중

모델명 끝에 A가 붙는 모델이 이와 같은 대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소스기기에서 나온 신호나 프리앰프에서 나온 신호가 액티브 크로스오버를(이때 HF나 LF 유닛이 재생할 수 있는 주파수만 남게 된다) 거쳐 파워 앰프로 유입되는데 이 사이 별도의 필터 없이 유닛을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신호 손실은 패시브 크로스오버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유닛마다 1채널의 앰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2웨이 스피커 한조를 구성하기 위해선 스테레오 파워 앰프 2개가 필요하다. 결국 더 거추장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통 액티브 스피커라 일컫는 스피커엔 파워 앰프 회로와 액티브 크로스오버 회로를 함께 넣는다. 다인오디오 MC15 역시 이와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아무래도 파워 앰프가 내장되어 있으니 스피커의 스펙뿐 아니라 파워 앰프에 대한 스펙도 궁금할 것이다. 파워 앰프는 2웨이 액티브 스피커인 만큼 50W 출력으로 2채널로 구성하고 있다. 캐비닛 용적은 4.8리터로 조금 적은 편이지만 메이커 스펙상 55Hz-21kHz(±3dB)에 이르는 재생주파수 특성을 갖는다. 트위터는 28mm의 에소텍 돔 트위터가 채용되며 미드우퍼는 5.9인치 크기의 MSP 우퍼가 탑재된다.

MC15의 주 활용 범위는 멀티미디어 스피커이다. 아무래도 하이엔드 PC용 스피커로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MC15 스피커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작은 스피커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니, 저음은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스탠드가 아닌 책상에 올려놓는다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하면 보통 스피커의 경우 뒷벽과 가까울수록 저음의 양이 늘어나는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저음이 과하게 되면 뒷벽과 거리를 띄워 저음의 양감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은 뒷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천장 · 바닥 · 뒷벽 · 옆벽까지 모두 해당된다. 즉 책상 바닥에 놓고 쓰면 책상 바닥으로부터 저음이 직접적으로 반사되기 때문에 스탠드에 올려놓았을 때보다 저음의 양감은 증가한다. 물론 이것을 개발한 다인오디오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튜닝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통통 튀는 중저음은 기분이 좋다. 멀티미디어 스피커이다 보니 여러 가지 장르의 사운드를 가릴 것 없이 재생해야 하는데 팝 · 클래식 · 재즈 할 것 없이 잘 나온다. 여기서 MC15의 소리가 자신의 취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운드 카드를 통한 EQ 조절도 가능하겠지만 이보단 MC15 자체에 내장된 액티브 크로스오버에 의한 조절도 좋다. 저음은 레벨 2를 1 스텝 단위로 ±1 스텝씩 조절 가능하며 중음은 레벨 2를 1 스텝 단위로 -2 스텝씩 조절할 수 있으며 고음의 경우 레벨 1을 1 스텝 단위로 ±1 스텝씩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소스기기의 출력 전압이 높고 낮을 경우를 대비하여 +4, 0, -10 스텝으로 입력 레벨을 조정할 수 있다. 결국 폭넓은 호환성과 다양한 장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개발된 것이다.

음악뿐 아니라 박진감 넘치는 게이밍 사운드도 대단하다. 게이밍 사운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레이싱 게임에서의 자동차 엔진 사운드인데 〈테스트 드라이브 언리미티드〉나 〈니드포스피드 프로스트리트〉와 같은 게임에서 각 메이커의 엔진음 특성이 아주 잘 살아나는데 묵직한 저음만 강조할 경우 높은 RPM에서의 엔진 회전음이 잘 살지 않지만 MC15의 경우 고회전에서의 엔진음이 굉장히 잘 살아난다. 또한 〈레인보우 6 베가스〉에서 총소리는 단연 압권! 묵직한 저음만 내뿜는 스피커에서 들을 수 없는 리얼리티가 살아난다. MC15만으로도 괜찮지만 여기서 굵고 묵직한 저음까지 뽐내고 싶다면 Sub 250MC를 장착하면 된다. 특히 MC15는 하이패스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플랫 · 60Hz · 80Hz 순으로 선택 가능하다. MC15의 하이패스를 80Hz으로 맞춰놓고 Sub 250MC의 로우패스를 80Hz로 세팅하면 자칫 거북한 사운드가 나오기 쉬운 서브우퍼와 조합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_최성근

수입원 : 태인기기 (02)971-8241

MC15
- 가격 : 160만원
- 구성 : 2웨이 2스피커 액티브
- 인클로저 : 베이스 리플렉스형
- 사용유닛 : 우퍼 15cm, 트위터 2.8cm
- 앰프 출력 : 50W
- 크로스오버 주파수 : 1500Hz
- 소비 전력 : 10W, 90W(최대)
- 크기(WHD) : 17x26x23.5cm
- 무게 : 7kg

Sub 250MC
- 가격 : 90만원
- 사용유닛 : 우퍼 24cm
- 재생주파수대역 : 29Hz-50Hz
- 앰프 파워 : 140W
- 소비 전력 : 325W(최대)
- 크기(WHD) : 28.9x29.4x31.8cm
- 무게 : 10kg